

지역 소식통

정읍시, 내장산 상가지구 교량에 야간 조명 설치

정읍시가 내장산 상가지구 교량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 내장산국립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야간 휴식처로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시는 2021년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3억5천만원을 들여 내장산 상가지구 교량 4개소(봉룡교, 서래교, 신선교, 연자교)에 각각의 의미를 담은 디자인 조명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야간에 내장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야간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물론, 더 특별하게 내장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봉룡교(鳳龍橋)에는 상상과 현실 속의 신령한 네 가지 동물 중 하늘을 상징하는 봉황(鳳)과 땅을 상징하는 용(龍)의 동지를 감싼 형태를 형상화하는 조명을 설치했다.

또 서래교(西萊橋)에는 논과 밭을 상징하는 뽕과 휴렁이를 잘게 부수고, 바닥을 관관하게 골라주는 썩레질의 '뽕살뽕'을 형상화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감염취약시설에 신속항원 진단키트 배부

고창군이 감염취약시설(노인노양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에 신속항원 진단키트를 배부해 고령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고창군보건소는 고위험 감염취약시설 31개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주기적 선제검사(PCR)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내에서도 고령층의 돌파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선제적인 코로나19 검사가 시행된다.

보건소는 감염취약시설 이용자를 포함한 모두 2241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속항원검사는 소요시간이 15~20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PCR방식(3~6시간 소요)보다 검사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넷플릭스 인기 '고창군 UP'

"먹보와 털보가 왔다간 곳이 어디예요?" 여행콘텐츠 제작·방영 인지도 높아

최근 넷플릭스와 케이이블채널이 고창을 배경으로 여행콘텐츠를 제작·방영하면서 고창군에 촬영장소를 묻는 등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Netflix)는 먹보와 털보에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은 명장면 BEST3를 공개했다.

이 중 1위로 '밭과 함께 고창 명사십리 일몰 라이딩'이 꼽혔다. 고창에 간 먹보 비와 털보 노홍철이 밭과 함께 일몰이 지는 명사십리를 달리는 장면이다.



을 배경으로 라이딩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특히 털보 노홍철이 라이딩 하는 내내 "이건 꿈이야", "꿈이야 생시야"라고 연신 감탄했던 고창의 명사십리 제작발표회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언급할 정도였다.

먹보와 털보 고창편은 ▲고창읍성

과 한옥마을 ▲함깨마을 클라이밍 ▲병바위 ▲선운사 ▲상하농원 ▲학원농장 ▲만들꽃밭체험장 등의 아름다운 볼 풍경이 담겼다.

또 최근 케이블방송(E채널 토요일은 밤이 좋아)에서 고창해물(백합정식, 된장 사브사브, 참계장, 민물새우탕, 풍천장어구이, 오도복배살, 꼬리곰탕, 이탈리아 레스토랑)가 소개되며 군청에 촬영장소를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지기도 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제 고창은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벗어나 맛보고, 체험하고 머물며 한반도 첫수도의 매력을 즐기는 여행지로 변모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밀려들 전세계 관광객들을 맞이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종택 부안군 부군수가 16일 부안상설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하다"

김종택 부안 부군수, 상설시장 코로나 방역상황 점검

김종택 부안군 부군수가 16일 부안상설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됨에 따라 오미크론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담당자 지정, 주요 이동구간 내 손소독제 비치, 실내 환기 등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이 위중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31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패스 적용 현장점검 등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해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종택 부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하다"며 "전통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우리 모두 숭선수범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2022년도 예산 7100억원 확정

부안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서 의결... 본예산 첫 7000억 시대 개막

부안군 2022년도 예산이 7100억원으로 확정돼 사상 첫 본예산 7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군은 16일 열린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이 7100억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6421억원보다 10.6% 가량인 6799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군 예산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으로 첫 7000억원 시대를 개막하게 됐다.

분야별 주요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323억원, 공공서비스 및 안전 78억원, 교육 47억원, 문화 및 관광 331억원, 환경 813억원, 사회복지 1209억원, 보건 99억원, 농림해양수산 1745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2억원, 교통 및 물류 239억원, 교통 및 지역개발 579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일상회로의 회복을 위해 2022년도 예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인 만큼 한 톨도 헛되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투입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는 16일 열린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1일간의 2021년도 마지막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4차례의 본회의를 통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 34건의 조례안과 건의안을 처리하였다.

이번 회기에서는 올해 집행부의 업무현황 및 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247건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토록 하였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7,100억원 (일반회계 6,755억원, 특별회계 345억원)의 예산안 중 10월간의 예산집행을 통해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낭비적 요인이 있는 28건의 사업에 22억원을 삭감하였고,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급변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조정했다.

아날 김연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안출신 조남철 국수를 통한 문화정책 강화 제언'을 강조했다.

또한, 장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채택을 통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일원화를 촉구했다.

문찬기 의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커지는 와중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발생하여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으로 연말연시 만남과 이동자제"와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군민을 위한 군민이 행복한 열린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정례회를 마쳤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AI 차단방역 민관 협력 총력 대응체계 구축

정읍시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민관 협력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농가에서 1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야생조류 발생 건수도 14건에 이르는 엄중 상황이다.

특히, 정읍에서도 동진강과 정읍천에서 11월 초 각각 1건씩 발생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방역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4단계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첫 번째 단계로 철새도래지로

부터의 AI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민간방역자원 살수차 4대를 동원 중점 방역을 실시한다.

동진강과 정읍천 고부천 주변 도로 약 50여 킬로미터 구간을 매일 3회씩 소독함으로써 차량 바퀴를 매개로 한 전파를 1차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두 번째 단계로는 공동방제단 방역 차량 7대를 동원해 가금 농가 진입로와 마을 입구를 주 3회 소독, 차량으로부터 전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세 번째 단계는 오리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과 최근 신리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광역방

제기 2대를 동원해 중점 방역할 계획이다.

일반 육용 오리사육 농가는 주 3회 소독하고, 종오리 농장과 신리계 농장은 매일 소독을 시행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네 번째 단계는 오리사육 농장 내부 AI 바이러스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를 주 1회 이상 빈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리사육 농가와 주변 지역에 방역을 집중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소득을 이룰 수 있는 축산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